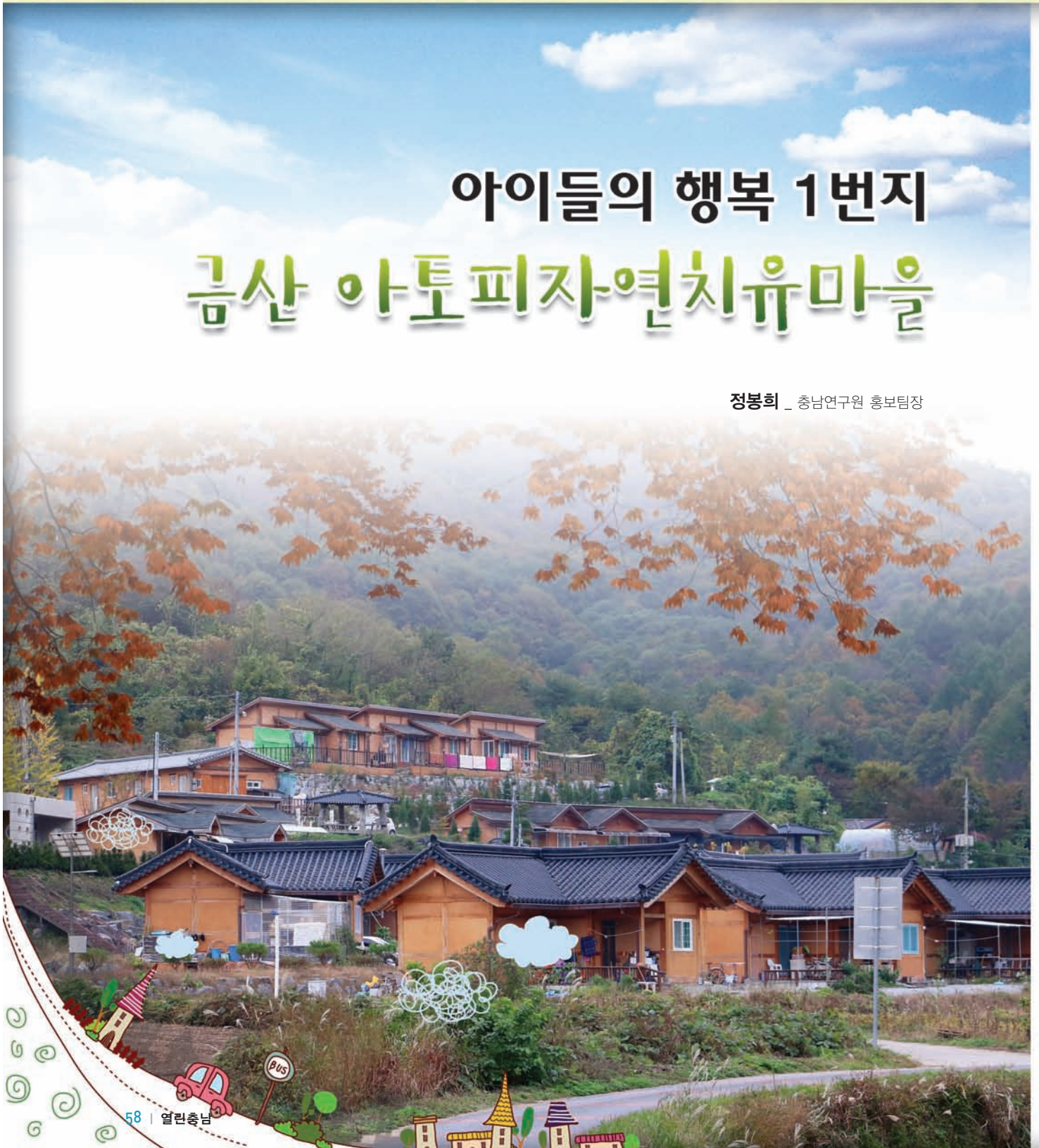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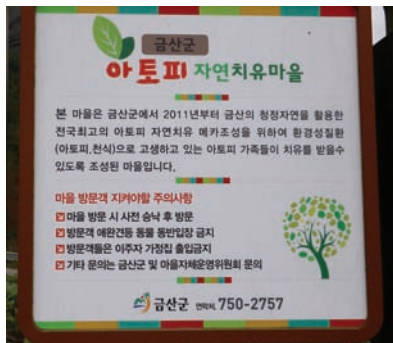
아이들의 행복 1번지 금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1리에는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이하 아토피마을)'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처음 아토피마을을 방문했을 때 '체험도 아닌 치료 목적으로 마을을 운영한다?'는 말에 의아해 했던 기억이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산골 오지(금산 읍내에서도 1시간 거리)라는 단점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깨끗한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마을에 있는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마을의 성공적 정착에 일등 자원이자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준 고마운 곳이다.



〈마을초입의 입간판〉

처음 아토피 마을로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당시 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금산군 관계 공무원 등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있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한 학생이 전학을 왔고 아토피 치료를 돕기 위해 교실 벽을 황토벽돌로 바꿨다고 한다. 아토피가 호전되자 다시 돌아갔지만 악화돼 이 학교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후 상곡초교 주변을 아토피 마을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황토치유방을 중심으로 한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 조성 계획'으로 발전했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게 된 것이다.

처음 9동으로 시작된 황토치유방은 현재 29세대 91명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늘어나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이 마을과 협약을 맺은 성남시에서 투자를 받아 5채를 지어 성남시민이 이주해오기도 했다. 앞으로 모두 40채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2010년 당시 전교생 14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상곡초교는 지금 초등생 47명, 유치원생 11명 등 학생수가 총58명으로 늘었다.



〈상곡초등학교 학생이 많다는 증거?!〉



〈아토피자연치유학교로 지정된 상곡초교〉



아토피마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산군청 정길호 팀장은 “아토피자연치유학교로 지정되면서 지난 해 교육청에서 38억 원을 투입해 아토피 치유학교로 신축했고, 학교 안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또 “군에서는 교육경비로 매년 4천만 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운영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에서는 상곡초등학교 급식비를 다른 학교 보다 학생 1인당 약 2,000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영양사가 아토피 아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식단을 조정하여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상곡초등학교 급식실 모습〉

이 마을 이주민 운영위원회 허영순 위원장(46세)은 “첫애가 아토피가 심해서 치료를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광명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지 현재 6년차다. 사실 여기로 오는 이주민들은 일반 귀농귀촌과는 다르다. 아이들 치료가 가장 최우선인데,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랑했다.

사실상 상곡초등생의 80% 이상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 아이들마다 못 먹는 음식을 파악해서 각자 특성에 맞는 식단을 제



〈인터뷰 중에 허영순 운영위원장의 밝게 웃는 모습〉

공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월 1회씩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이 마을에 직접 찾아와 아토피 아이들 진료를 돕고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해 아토피마을에는 마을 학생들의 공부방과 치유실로 구성되어 있는 ‘미래 꿈 센터’도 완공되었는데, 이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미래 꿈 센터 전경 및 내부 모습〉



필자가 찾은 이날 허 위원장은 마을 주민과 함께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고 있었는데, 처음 인사하며 봤지만 원래 이 마을 주민처럼 보였다.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주중에만 생활하고 주말에는 원래 살던 도시 지역에서 살곤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허 위원장은 “여기가 너무 좋다.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정착해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지금은 이 마을을 잘 지켜나가고 싶다. 이주민들이 대부분 젊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마을 주민들과 합심한다면 서로 나눌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금산군 정 팀장도 “앞으로 우리 마을을 활용하여 아토피 로션, 목욕제, 비누 등을 개발하고, 이주한 어머니들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소득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토피 캠프 01〉



〈아토피 캠프 02〉



〈아토피 케어 모습〉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경증아토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자연치유 캠프를 운영해 마을을 제대로 알리고,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금산군은 도농협약체결을 맺고 서울에 거주하는 아토피 가족들이 매년 160명씩 금산군으로 아토피 캠프를 오고 있다. 홍성군과 성남시에서도 이와 같은 아토피 캠프를 갖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아토피 캠프를 통해, 아토피 치료를 위한 이주민과의 정보교환은 물론 아토피마을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로 등록하기도 한다고.

이처럼 아토피마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마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보면, 금산군청과 상곡1리 주민, 그리고 이주민들의 아토피마을... 이 삼각구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소통과 협력이다. 지난 해 아토피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이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한다고 한다.

이주민인 전미선 씨는 “이 마을에 온 사람들은 처음엔 치료를 위해 온 환자가족이었지만 점점 이곳에 매력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정착하고 싶은 젊은 가족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아토피마을을 위한 논의를 할 때, 군청과 마을 이장단, 그리고 이주민 운영위가 함께 모여 얘기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안했다.



필자도 이 마을에 와서 이주민과 이야기를 해보니, 우선 객식구가 아니라 상곡리 마을 주민과 같은 삶을 사는 ‘주민’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을지 조금은 알게 되고 나니, 군청이나 원주민들과 생긴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아토피 마을 모습〉

어쨌든 이주민가족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적응해주어서 너무 좋다는 것이다. 아토피 때문에 항상 예민해져 있던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웃는 모습도 많아졌다. 다만 아토피의 특성상 초등학교가 끝났다고 해서 낮게 아니고 평생 관리하며 데려가야 할 친구라고 볼 때, 좀 더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아토피마을에 처음 입주해서 생활하고 치료하는 운영방안 등을 재점검해서 이주민 가족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교와 군청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 인근 제원중학교까지 아토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된 점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보다 이 마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은 지금의 초등학교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형태의 통합학교로 개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현재 아토피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산군이 자체적으로 마을사업을 확대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사업으로 확대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로니아 식초를 담그고 있는 모습〉

필자가 듣기에도 지금 이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가족이 많다고 한다. 이 마을이 생긴 취지를 잊지 말고 정말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절실한 세대가 들어와서 제2의 행복을 실현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치료 이상의 치유와 힐링이 있는 마을 공동체로 발전해서 금산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인터뷰 후 다시 아로니아 식초를 만드는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에 한 번 더 힐링했다고나 할까~ ◀

